

3) 풍 물

풍물은 일제시대 이후 ‘농악’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하다. 풍물은 농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양하다. 풍물굿은 마을신을 맞이하고 접신(接神)하는 당에서도 행해지고, 생산의 현장인 들판이나 어장, 또는 전쟁터나 생활공간인 집의 마당과 당산 주변에서도 한다. 따라서 풍물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장소에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을에는 당산이나 성황당, 장승과 같은 신역이 있다. 그곳에는 항상 마을을 보호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길흉화복과 외래의 재액, 질병을 방지해주는 마을 수호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성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 수호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대접한다. 그리고 그 성역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오락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한 오락이란 풍물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신과의 교화를 꾀한다.

풍물은 당초에 종교적인 축술예능의 성격이 강했으나 민중의 문화로 토착되는 과정에서 두레패나 농민군에 의해서 발전되어왔으므로 전투적이면서도 종교적 공동체, 같은 신분끼리의 공동체, 삶과 저항의 공동체 등을 결속하는 기능을 가진다. 당굿·마당밧이·매굿·걸립굿 등이 모두 의식을 행하는 풍물이지만 판굿은 의식을 떠나서 순전히 구경꾼에게 보여주기 위한 순수 연희의 굿이다. 집안굿이나 당굿, 문굿의 마당놀음이 판굿으로 발전한 것이다.

지역마다 그 구성이 다르나 흔히 재비들이 열을 지어서 여러 가지 진풀이를 연행한 뒤 각 재비들의 기량을 보여주는 개인놀이로 짜여진다. 진풀이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풍물패들이 열을 지어서 나선형으로 감아 들어갔다가 풀어나오는 멍석말이, 둥글게 열지어 서서 상쇠가 재비 하나씩 달고 돌아나오는 고사리꺾기, 여러 패로 줄지어 서서 서로 엇갈려 나가는 가세진, 열지어 서서 좌우로 말 맞추어 떼는 좌우치기 등이 있다. 이밖에 판굿은 노래를 합창하는 노래굿, 무동춤, 도둑재비와 같은 연극, 상쇠놀이, 설장구놀이, 상법구놀이와 같은 개인놀이로 엮어진다.

순천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질 만한 풍물패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황전면 용림리의 풍물이 최근까지 제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구례와 곡성에 인접하여 다른 면과는 달리 전북지역의 풍물과 비슷한 내용과 가락이 많다. 상쇠를 잘하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옛날의 기예는 많이 달라졌다.

황전면 용림리의 풍물 편성과 복색은 다음과 같다.

영기 : 기수는 고깔을 쓴다

대포수 : 한복 위에 털옷(요즘은 점퍼)을 입는다

상쇠 : 흥동지에 전립(戰笠)을 쓴다(상모)

중쇠 : 상쇠와 같음

끝쇠 : 상쇠와 같음

징수 : 흥동지에 고깔을 쓴다(2명)

설장구(수장구) : 흥동지에 고깔 또는 전립을 쓴다

북장구 : 수장구와 같음

큰북 : 흥동지에 고깔을 쓴다

수북 : 흥동지에 전립을 쓴다

방구(소고) : 흥동지에 전립을 쓴다(10~13명)

부복 : 수복과 같음

조리중 : 조리중 복색

창부 : 창부 복색

무동(양반각시)

쇠꾼의 쇠옷은 옛날에 흥동지를 입었고 지금은 한복에 색띠를 댔다. 흥동지는 붉은 바탕이며 반소매에 색등을 달았다. 등에는 청·홍·황색의 명주 드림을 달았는데 드림의 길이는 5척 정도이다. 쇠꾼이 쓰는 전립(병거지)에는 종이나 깃털로 만든 보풀(부포) 상모를 단 것과 채상모를 단 것이 있다. 대포수는 대포수 복색에 종이탈과 대포수 모자를 쓰고 총과 담뱃대를 든다. 대포수 모자는 가죽으로 만들며 좌우 양편에 대나무를 세워 달고 대나무 끝에 종이나 털로 뭉쳐 만든 공을 끈으로 매단다. 또 대나무 끝에 끈을 매되 그 끈에 4~5개 고리를 꿰어 맨다. 또 종이에 대장군(大將軍) 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써서 단다. 조리중은 장삼에 송낙을 쓰고 바랑을 메었다. 송낙은 짚으로 만들며 송낙 꼭대기에 오색천을 단다. 양반은 창옷에 탈(광대)을 쓰고 머리에 종자관을 만들어 쓴다.

용림리에서는 보름 새벽에 당산굿을 치는데, 회관에서 나발을 불면 마을사람들이 굿물을 갖춰 준비를 하고 풍물을 시작한다. 먼저 어우리굿을 치고 나서 길굿(질굿)을 치며 당산으로 간다. 당산에서 당산굿을 치는데 '제만굿'이라고도 부른다. 당산굿을 마치고 길굿을 치며 마을로 내려와 공동우물에서 샘굿을 친다. 샘굿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있다. "천년대한 가물어도 꿩 꿩 나오소." "이이 샘물 좋네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말세."

샘굿을 마치면 길굿을 치고 집집이 들러 풍물을 친다. 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부른다. "권 권 문열어 어서 치고 술 먹세." 문굿을 치고 나서 마당에서 마당굿을 친다. 마당을 돌며 일채·이채 등 여러 가락을 치고 나서 조왕굿으로 들어간다. 부엌에서 쇠를 치고 다음과 같이 구호를 부른다. "매구여-" "잡구 잡신은 쳐내고 명라 복구(복)는 쳐드리자."

장독에 가서 장구 방굿을 치고 뒤꼍에 가서 철룽굿을 친다. 철룽굿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앞에도 철룽 뒤에도 철룽 어이 어리 철룽" 철룽굿을 마치고 집 안 샘에서 샘굿을 치는데, 구호는 마을 샘굿의 경우와 같다. 샘굿을 마치고 주인이 고사상을 차려놓으면 고사굿을 치며, 대갓집에서는 상쇠가 고사소리를 부르기도 한다. 고사굿을 마치면 길굿을 치고 다른 집으로 간다. 집집마다 고사굿을 마치면 밤에 판굿을 친다.

판굿은 초저녁에 시작하는데, 먼저 일채·이채 등 채굿을 쳐서 올린 다음 허허굿을 치고 오방진을 친 다음 노래굿, 문굿을 치고 도둑재비를 한다. 아주 오래 전 용림리의 판굿은 곡성의 풍물과 같았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농사일이 많은 여름에는 두레풍장을 하였는데, 아침에 나발을 불면 농꾼들이 모여들고 풍년굿을 몰아치다 길굿을 치며 들로 나간다. 논에서 김을 맬 때는 굿물을 치지 않고 다른 논으로 이동할 때, 또 밤에 김매기를 마치고 마을로 들어올 때 친다.